

씨어스

Large Cap 승급 테스트 시작

- 가격이 다가 아니다. 덤핑 영업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전략
- Large Cap으로 진화하기 위한 승급테스트 시작. 해외 사업 중요성은 커질 것

가격이 다가 아니다. 덤핑 영업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전략

동사는 언론보도 여파로 종가기준 15% 하락. 해당 기사는 디지털헬스 기업과 제약사의 관계를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시도였으나, 기사 내용의 일부인 경쟁 심화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며 장중 20%대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음.

기사에서 예시로 든 덤핑 입찰 케이스는 매우 극단적인 입찰 사례로 보이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한 영업전략.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은 병실 나아가 병동 단위로 24시간 활용된다는 점에서 운영상 비효율성이 발생하거나, 오류가 잦다면 채택 이후 이용률이 높아지기 어려움. 게다가 동사의 제품은 수술 전후의 환자에게 쓰이는 경우가 많음.

게다가 이미 동사의 씽크는 병원입장에서 ROI가 훌륭한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어, 병상수가 큰 입찰일수록 비가격적 요소가 더 중요할 수밖에. 대부분 선도 의료기기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기보다는 임상근거를 통한 프리미엄 전략을 선호한다는 것도 곱씹어볼 부분.

동사는 경쟁사들이 대부분 홀터 대비 진단 수율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달리 동사는 업계 최초로 임상현장의 표준 장비 대비 동등성을 입증한 전향적 임상시험 데이터를 확보함. 그리고 가장 많은 운용 노하우를 확보하고, 이를 구현할 최적의 조직구조를 갖추고 가고 있음. 게다가 고정형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서비스 플랫폼화가 가능한 것도 강점.

Large Cap으로 진화하기 위한 승급테스트 시작. 해외 사업 중요성은 커질 것

단기적으로 실적훼손 가능성 외에도 수급 관점에서 동사를 롱숏전략의 숏아이디어로 접근하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그러나 동사의 주가가 12개월 선행 P/E 13.5배까지 하락했다는 것과 경쟁사와의 시가총액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롱숏전략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노이즈가 반복될 경우 과거 특신, 치과용 임플란트 사례처럼 섹터 내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할 점.

오늘의 급락은 작년 Mid Cap 기업으로 승급에 성공한 동사에게, 시장이 제기한 Large Cap 승급 테스트와도 같음. 현재의 우려는 동사가 Large Cap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것들임. 우선 앞으로 다가올 2Q26 실적발표는 물론 매분기 국내 시장 성적표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어닝쇼크가 나지 않도록 세밀한 시장 기대치 관리가 필요할 것.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역량(IF가 큰 저널에 임상근거 및 HEOR(경제성 연구) 관련 논문 게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증명, 재계약 유지율 등)과 함께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반드시 입증해야 함. 그런 점에서 중동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가시화된 성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씨어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